

현대 화예디자인에서의 비이성 경향에 관한 연구
: 무의식 탐구경향을 중심으로

Non-rational tendency in contemporary floral art & design
: a focus on the exploration of the subconsciousness

강병길 (Kang, Byung Kil)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이정민 (Lee, Jeong Min)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1-2. 연구내용과 방법

2. 비이성 경향의 근·현대 미술사적 계보

3.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

4. 조형에서의 무의식

- 4-1. 다다이즘과 무의식
- 4-2. 초현실주의와 무의식

5. 현대 화에디자리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들

- 5-1. 성격구조와 무의식의 기본추동 : 성추동과 공격추동
- 5-2. 성격역동과 무의식의 자기방어기제 : 억압
- 5-3. 성격지형과 무의식의 경계 : 꿈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현대 조형예술계에서는 20세기 산업사회를 지배하던 모더니즘의 붕괴와 함께 이의 중심 체계였던 이성의 지배가 붕괴되고 이에 대한 반동적 경향으로서의 비이성적 체계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동시대적 경향이 해체(Deconstructivism)이다. 그러나 이런 비이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조형예술에서 표현한 것은 멀리서 고대, 또는 16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보쉬(Hieronymus Bosch)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근·현대 미술사에서도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현대 조형예술의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비이성적 체계에 대한 탐구가 근·현대 미술사조에서 어떠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무의식 탐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화에디자리에 있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 조형예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이성 경향에서 화에디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동시대 예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화에디자리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Abstract)

Contemporary visual art is characterized by a systematic study of the irrational. This trend was largely a reaction to the rationality of Modernism, which fell out of favor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is new trend against Modernism is represented by Deconstructivism. However, the appeal of irrationality has a deeper roo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historical roots of this interest in the irrational. In doing so,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effect of Freud's theory of the subconscious on the growth of Surrealism in modern art. In particular, we explore how this same tendency is reflected in modern floral art & design. By doing so, we are able to relate the developments in floral art & design with the developments in other areas of modern art. Finally, we show that it is possible for floral art & design to be in the vanguard of contemporary art because of its unique characteristics.

(Keyword)

irrational, subconsciousness, drive, repression, dream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화에디자¹⁾인¹⁾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 기원은 모든 예술들이 그러했듯이 종교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의 경우도 자연숭배사상이 근간이 되어 식물을 신의 하강로로 사용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신앙적인 대상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를 생활환경주변에 가까이 두고 즐기려는 욕구가 발생하면서 화에디자인의 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자연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술로서의 표현, 인간의 조형능력과 영감을 통한 자연의 표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와 함께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은 기술과 표현의 다양성을 이룩한 화에디자인은 그 기능과 가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형의 한 영역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양식의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작품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런 표현양식들의 가치와 정신을 해석하고 체계화시켜 동시대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론적 체계의 정립이 또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현대 화에디자인의 표현양식들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를 '비이성 경향'이라는 동시대적 조류와의 연관성 하에서 살펴봄으로써 현대 조형의 발달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 화에디자인의 위치를 점검하고자 한다.

20세기 초 근대미술의 출현과 함께 인간의 이성적 체계에 의한 미술사조가 발달하였다. 이는 20세기의 기계문명, 서양의 분석적, 과학적 사고의 지배 아래 조형예술과 디자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붕괴와 함께 이의 중심체계였던 이성의 지배가 붕괴되고 이에 대한 반동적 경향으로서의 비이성적 체계에 대한 탐구가 특히 해체(Deconstructivism)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이성적 체계에 대한 탐구는 해체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근대미술(Modern Art)의 계보에서, 이성의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조들의 계보와 비이성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조들의 계보라는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본고는 인간의 비이성적 체계에 대한 탐구가 근·현대 미술사조에서 어떠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무의식 탐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초현실주의는 비록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났다가 지금은 그 유행이 지난 예술사조라고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예술에 있어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초현실 경향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심리학에서 그동안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간의 무의식

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의식 탐구 경향이 현대 화에디자¹⁾인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 조형예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이성 경향에서 화에디자¹⁾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런 조형예술계의 발달과 화에디자¹⁾인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화에디자¹⁾인이 조형예술의 발달과 얼마나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는데 이는 화에디자¹⁾인의 예술적, 디자인적 표현가치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 견해를 지니고 있는 조형예술계의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에디자¹⁾인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인간의 내면세계는 심리학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이론은 초현실 경향과 가장 관련이 깊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며 이 이론이 주장하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구분과 이성적 체계와 비이성적 체계의 구분이다.

본고의 제목에서 비이성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non-'의 의미가 아니다. 감성과 무의식, 해체의 경향에서 강조되고 있는 반이성의 개념, 또 기존의 모든 이성적, 구조주의적, 절대적 경향으로부터의 탈피를 내포한다.

현대 화에디자¹⁾인에 나타난 비이성 경향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현주의(Expressionism)계보에 속하는 감성에 대한 탐구경향, 둘째, 초현실 경향에 속하는 무의식에 대한 탐구경향, 셋째, 해체(Deconstructivism)의 영향을 받은 반이성의 탐구경향이다. 비이성경향의 원류를 찾아 들어가면 고대로부터 그 예를 들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세기 근·현대 미술사조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초현실 경향의 조형언어들을 기준으로 화에디자¹⁾인에 나타난 무의식 탐구경향을 분류하고 이의 작품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 장에서는 비이성 경향의 근·현대 미술사적 계보를 살펴본다. 크게 감성탐구, 무의식탐구, 반이성탐구와 관련된 미술사조들의 체계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무의식 탐구가 인간의 비이성 탐구경향의 계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시한다.

3 장은 초현실경향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에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심리학 이론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알아본다.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무의식의 의미와 역할, 작용 등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5장에서 본격적으로 화에디자¹⁾인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들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장은 조형예술에서 표현된 무의식 탐구경향에 대해 연구한다. 무의식탐구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형예술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본고에서 화에디자¹⁾인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들을 분석할 때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분류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를 조형예술의 이론으로 정립

1) 관련논문 - 이정민, 환경친화 가치를 위한 화에디자¹⁾인의 정체성 확립과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화에디자¹⁾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0. 2.

시킨 다다, 초현실주의의 이론과 조형언어들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5장은 현대 화예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들을 분석한다. 이를 정신분석학의 분류기준에 따라 성격구조, 성격역동, 성격지형 이론에 관련된 이미지별로 분류하고 각 이론에서 초현실경향의 표현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작품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6 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의의 및 제한점,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고는 문헌연구와 작품사례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관련 미술사조들의 발달계보, 이론, 조형언어들에 대해 미술사 문헌들을 참조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특성에 대해 대표적인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들 조형예술사조들로부터 유출된 분석기준이 화예디자인 작품을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화예디자인 작품의 사례연구는 작품의 지속성이 한정되어 있는 화예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작품집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이 또한 문헌연구에 기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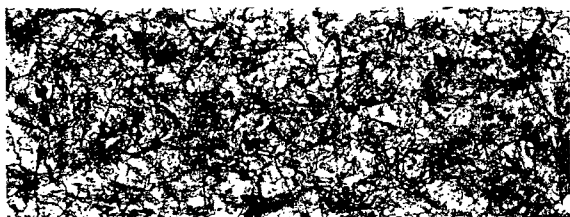
2. 비이성 경향의 근·현대 미술사적 계보

이 장에서는 비이성경향의 근·현대 미술사적 계보를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크게 감성탐구, 무의식탐구, 반이성탐구의 경향으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미술사조들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본고의 중점적 논의대상인 무의식탐구가 인간의 비이성탐구경향의 계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표현주의(Expressionism)는 조형언어들을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한 20세기의 미술사조들을 일컫는 말이다.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선, 형태, 색채 등은 이의 표현가능성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성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었으며 왜곡은 내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2) 이들은 사물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작가의 감성을 통하여 비춰진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그림1) 후에는 추상적인



[그림1] 뭉크(Edvard Munch), 절규(Scream), 1893, Oslo Kommunes Kunstsamlinger Munch-Museet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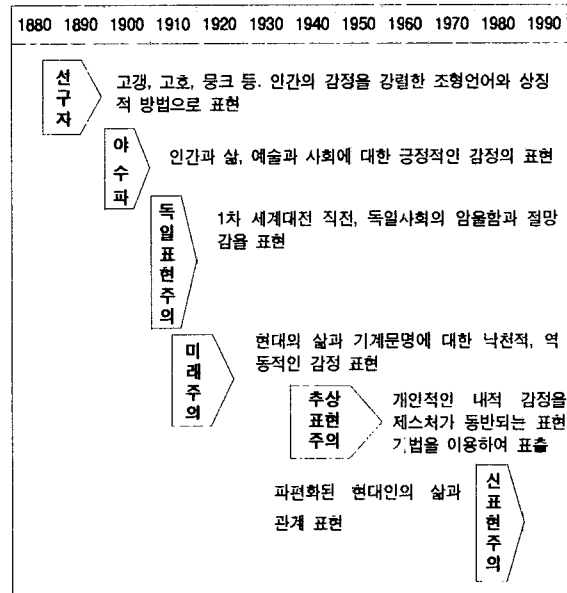


<그림2> 폴록(Jackson Pollock), 루시퍼(Lucifer), 1947, Mr. and Mrs. Harry W. Anderson 소장

2)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434, (1996).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외부사물의 개입 없이도 매우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그림2) 이들은 작품감상에 있어서도 감상자의 감정입을 강조하여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감정에 감상자가 직접적으로 몰입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표현주의 미술사조들에서 사용되는 조형언어들은 대체적으로 강렬하고 인상적인 경향이 있다. 표 1은 표현주의 사조의 시대흐름과 표현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현주의에서 강조된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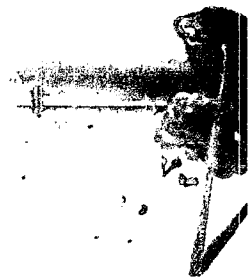


[표 1] 표현주의 사조의 시대흐름과 표현특징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추상표현주의는 표현주의의 계보 안에 있지만 그 기법에 있어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적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상호연관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둘 다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갈등과 절망, 불안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이를 사회개혁과 연관시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발전시켰다.

다다이즘(Dadaism)은 제 1 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했던 유럽의 전통 문명을 거부하고 기성의 모든 사회적, 도덕적 속박에서 정신을 해방시키고 개인의 진정한 근원적 욕구에 충실하고자 했다.

초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으며, 현실을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려 했다.(그림 3) 이들은 프로이트(Freud)의 학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무의식이 이성의 통제를 뛰어넘어 잠재된 충동과 상상의 세계를 해방시킨다는 학설을 인용하였으며 자동기술법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했다.3) 초현실주의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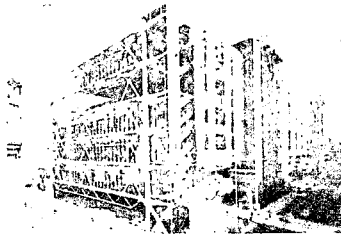
[그림3] 탕기(Yves Tanguy), 엄마, 아빠가 다쳤어요! (Mama, Papa is Wounded!), 1927,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추상표현주의는 표현주의의 계보 안에 있지만 그 기법에 있어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무의식적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상호연관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둘 다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갈등과 절망, 불안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이를 사회개혁과 연관시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발전시켰다.

새히 다루기로 한다.

해체는 여러 면에서 다다와 초현실주의가 시도하였던 비이성, 반예술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다는 종래 예술의 성격에 관한 모든 전제조건들을 의심하는 예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었다. 이는 해체가 모든 제반 상황을 의심하고 고정된 근본을 해체하는 맥락과 상통한다. 또한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비이성, 불합리의 추구, 미적 원형의 타파, 탈 장르, 우연성, 파괴성 등은 해체의 조형적 언어들과 관련이 있다. 다다는 외형적 표현의 파괴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설을 위한 백지상태(Tabula Rasa)의 건설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의도 역시 해체의 파괴가 기존개념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해체는 혼란스러웠던 1960년대 말 프랑스로부터 사회참여에 좌절된 실천적 사회주의 학자들이 사회변혁의 한 방법으로써 활용하였다. 언어학 분야에서 비롯되어 철학자인 데리다에 의해 해체주의로 전개되었다. 해체는 모더니즘 시대를 지배



[그림4] 로저스 & 피아노(Richard Rogers and Renzo Piano), 퐁피두센터(Georges Pompidou National Center of Art and Culture) (the Beaubourg), 파리, 1977

했던 이성적 체계의 독단을 해체하고 인간의 비이성적 체계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용한다. 즉 이성에 의해 고정화되고 전제화 되어버린 기존 개념을 의심하고 뒤집어들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이성적이고 불확정적인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한 파괴라고 할 수 있다.⁴⁾

탈 개 념 · 탈 의 미	구 성 법 · 탈 파 괴	형 태 의 유 회 성	상 호 침 투 성	부재 개방 광기 노출 변형 왜곡 전위								
				반 권 력	불 일 치	탈 구 성	탈 장 르	양 성 성	탈 중 성	탈 소 재	탈 기 능	탈 중 심
				무형태	기계미	반응화	파괴미	추상성	미완성			

[표 2] 해체의 조형적 어휘들

오늘날 해체의 개념은 철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형예술과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다. 표 2는 이런 해체의 경향이 조형적 어휘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4는 노출, 미완성의 해체어휘를 표현하는 예이다. 해체는 반이성의 경향이라고 하지만 표현주의경향이나 초현실 경향과는 달리 지적인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사조이다. 즉 반이성적 사고체계가 나타낼 수 있는 지적 가능성의 탐구

3) 월간미술 편: 앞의 책, pp.377-378.

4) 임광숙: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입체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p. 8, (1998).

에 중점을 둔다.

3.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

이 장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정신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를 나타내는 개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5장에서 화에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탐구 경향들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간의 정신에 대한 프로이드(Freud)의 이론은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 지형학적 이론(topographical theory), 그리고 역동적 이론(dynamic theory)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구조적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한다. 쾌락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욕망을 발산하는 원초아(Id),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이상적인 자기모습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초자아(Super Ego),



[표 3] 정신분석 이론의 구성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조절하여 현실적으로 수용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려는 자아(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지형학적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다양한 지층을 가진 지구의 지형적 구성에 비유한 것이다. 지각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무의식의 층, 전의식의 층, 의식의 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심층적인 것이며, 전의식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식은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식은 현재 인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다.

역동적 이론은 인간 마음의 에너지들이 상이한 인식의 수준에서 상호관계하는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원초아에 의한 욕망이 숨겨지는 무의식, 무의식적 동기유발에 대한 초자아의 견제, 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현실감각 및 무의식적 동기유발과 동기조절이 충돌하였을 때 일시 피난하는 곳인 전의식 등 정신적 힘(에너지)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정신적 힘의 작용이 신체를 통하여 외부세계로 표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사람의 경험의 일부는 의식의 수준에서 현실감증을 거쳐 정보화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부분은 무의식화 된다고 생각하였다.⁵⁾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은 어렸을 때의 경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빙산의 대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듯이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의식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의지적으로 무의식 세계로 몰아내는데 그 과정을 '억압'이라고 불렀다. 억압된 경험은 의식으로부터 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수반되는 감정은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고 인격의 나머지 부분에 동화될 수도 없어 상징화

5)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동아문화사, p. 63, (1996).

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방어기제를 동원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이런 과정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신경증적 증상을 이룬다.

이성적, 직접적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붕괴의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수단을 방어기제라 한다. 이들은 비현실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표 4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들이다.⁶⁾

방어기제	의미
억압 (repression)	불편감, 불안, 고통을 일으키는 과거경험, 소망, 갈등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
부인(denial)	외부의 위협이나 외상적 사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	무의식적 추동과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
투사 (projection)	실제로는 자신이 경험하는 추동(drive)을 타인이 그러하다고 귀인하는 것
합리화 (rationalization)	자신의 행동을 보다 수용할 수 있고 덜 위협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
대치 (displacement)	가능하지 않은 추동대상을 위협적이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승화 (sublimation)	추동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주지화(intellectualization)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인지적으로만 위협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표 4] 정신분석학의 주요 방어기제

자기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방어가 완전히 성공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방어태세를 늦추지 않는다. 이는 그가 현실판단과 적응에 써야 할 자아의 에너지를 내면의 욕망과 충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쓴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문에 현실 왜곡과 비논리성, 과장과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치료는 그 두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인정하게 하여 방어의 필요를 없애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는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시켜서, 개인의 성격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통찰과 이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감정을 재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자로 하여금 잊혀지고 숨겨진 기억(원본능의 소원)들을 찾아내어 의식 상에 떠오르게 하고 이를 인격의 나머지 부분에 연결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억에 부착된 힘(쾌락추구지향적 힘)을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⁸⁾

프로이드는 꿈 심상은 그것이 지닌 풍부한 의미로 인하여 정신분석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⁹⁾ 수면 중에는 자아의 방어기제가 약화되므로 억압된 욕망과 감정이 의식표면에 떠오르게 된다. 꿈의 분석은 이러한 꿈의 속성을 이용하여 무의식적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와 문제영역에 대해 통찰을 얻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만큼 꿈속에는 무의식적 욕구 및 공포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자아가 용납할 수 없는 욕구는 위장되고 상

징화된 형태로 꿈속에 표현된다. 따라서 꿈의 내용에는 꿈에 나타난 그대로의 모습으로서의 '현재몽(顯在夢)'과 그 현재몽이 상징하고 있는 '잠재몽(潛在夢)'의 두 가지가 있다. 자아가 의식하기에는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잠재몽을 덜 고통스럽고 비위협적인 현재몽으로 바꾸는 작업을 '꿈의 작업'이라고 하였다.¹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현대 사상 전반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인간 내적인 삶, 즉 꿈이나 환상, 과거기억, 행동의 무의식적인 동기 등에 돌리게 하였으며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¹⁾

4. 조형에서의 무의식

4 장에서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작용을 조형예술의 수단, 또는 표현대상으로 삼아 이를 조형이론으로 체계화시킨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들이 말하는 조형에서의 무의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의 중점 연구주제인 화예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담구 경향들을 분류, 분석할 때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를 예술사조의 이론으로 정립시킨 초현실주의의 조형언어들을 기반으로 하고자 함이다. 무의식담구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형예술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4.1. 다다이즘과 무의식

1차 세계대전 이후 다다¹²⁾ 작가들은 사회와 사람들을 개선시킨다는 것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1차대전을 통하여 본 사회와 인간은 끔찍한 전쟁과 타인에 대한 잔인성을 합리화시키는 존재들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다다는 1차 대전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기존사회의 모순과 절망적 상황을 파괴하여 새로운 건설을 위한 백지상태(Tabula Rasa)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의도하였다. 다다는 표현되는 양상이 허무주의적인 모습을 띠지만 다다의 선언문에 의하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위에 기반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반예술적, 파괴적 작품활동은 기존의 모든 도덕적, 심미적 가치가 1차대전의 파국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대표적 작가는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이다. 그가 당시까지 예술에 있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Monalisa)에 수염을 붙인 작품(그림 5)을 발표했을 때 그는 문화의 정체성과 고정관념, 미적인 기준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림5] 뒤상 (Marcel Duchamp), L.H.O.O.Q., 1919, 개인소장, 파리

6) 앞의 글, p.50.

7) 앞의 글, pp. 434-435.

8) 앞의 글, p. 64.

9) 앞의 글, p. 65.

10) 이정호: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p. 40, (1984).

11) 원호택: 이상심리학, 범문사, pp. 64-65, (1997).

12) 1915-22년경 활발히 활동. 다다는 현대의 거의 모든 예술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평해지며 공간적으로도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포괄하였다.

다다의 공헌은 또한 비이성적 사고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에 이용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이성적 사고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이성적 사고에 의거한 기존사회의 가치체계가 1차대전과 같은 비인간성과 잔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인간의 이성적 체계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그들은 비이성적, 무의식적, 우연적, 부수적, 직감적 의식체계에 관심을 가졌다.¹³⁾ 그림6은 뒤샹의 작품인데 유리판에 금이 간 것은 작품이 전시된 후 나중에 일어난 사고였다. 뒤샹은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분열의 패턴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주장하였다.¹⁴⁾



[그림 6] 뒤샹 (Marcel Duchamp),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The Large Glass), 1915-23, Philadelphia Museum of Art.

다다이즘은 전쟁의 참화와 파괴에 의한 가치관의 전도, 전통적인 유럽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그 배후의 정신상황이었다. 1924년 초현실주의가 발족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4.2. 초현실주의와 무의식

초현실주의(Surrealism)¹⁵⁾는 다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이들 역시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다가 파괴시켜 놓은 기초 위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건설을 의도하였다.¹⁶⁾ 표 5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는 언어나 다른 어떤 행위, 사고의 실제적 기능, 이성과 미학적, 도덕적 고려에 의한 통제와는 다른 사고를 표현하는 것, 즉 순수한 정신적 자동기술이다.”라고 정의하였다.¹⁷⁾ 초현실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인간 상상력의 해방이며, 합리주의가 도달한 관념적인 막다른 길에 대한 반격과 타개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이성의 통제가 없는 초현실성을 인정하고 이를 상상력이나 환각력에 의하여 무의식 속에 표출하고자 하여 자동기술법(Automatism)¹⁸⁾에 의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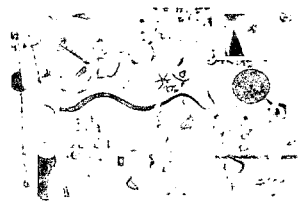
13) Stangos, Nikos: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p. 114, (1981).
 14) De la Croix, Horst & Richard G. Tansey: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p. 910, (1986).
 15) 1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부터 2차대전 발발 직후까지 약 20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위적인 예술운동이다. 원래 문학운동인데 브레통(Andre Breton)에 의해 결성되었고 1924년과 1929년에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전위적인 예술운동들에 비해 양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논쟁적인 예술운동이 되었다.
 16) Stangos, Nikos: 앞의 책, p. 121.
 17) 앞의 글, p.377-378.
 18)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념 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중간

		다 다	초현실주의
공통점		1. 이성의 불완전성 인식 2. 무의식의 탐구 3. 비이성, 불합리에 관심 4. 자동기술법(Automatism) 사용 5. 생체적 형태 사용 6. 사회개혁에의 관심	
차이점	목적	기존사회의 모순과 망적 상황의 파괴. 극적 목적은 새로운 건설을 위한 백지상태(Tabula Rasa)의 기반 마련	다다의 파괴 위에 긍정적인 건설을 의도. 의식적 현실과 무의식적, 꿈의 현실 사이의 조정, 화합을 시도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현실(초현실)을 이루고자 함.
	표현양상	허무주의적, 파괴적 양상	무의식의 작용에 근거하는 자동기술법에 의한 추상적 표현경향과 비합리적인 꿈의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고자 한 사실적 표현경향.

[표 5]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초현실주의의 초기에는 '수면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자동기술법, 꿈의 기술, 영매술적(靈媒術的) 실험 등이 많이 행해졌다. 그들은 꿈과 우연, 원시적인 이야기 등에서 힌트를 얻어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자유로이 전개, 새로운 미의 세계를 펼쳤다.¹⁹⁾

초현실주의는 단순히 꿈과 무의식의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꿈의 세계와 의식,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reality)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완전무결한 현실(absolute reality), 즉 초현실(Surrealite)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²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특성과 내면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초현실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견실한 가치들에 기초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으며 이는 3장에서 살펴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치료이론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그림 7] 미로(Joan Miro), 어릿광대의 카니발(The Harlequin's Carnival), 1924-25, Albright-Knox Art Gallery, Buffalo

초현실주의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추상적 표현의 경향(Abstract Surrealism)(그림 7)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적 표현의 경향(Imagist Surrealism)(그림 8)이다. 대부분의 초현실주의 작품은 인간 내부의 근저에 있는 불안과 갈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 이끌리는 자동기



[그림 8] 달리(Salvador Dali), 기억의 지속(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가 좋은데, 여기서 자연히 표출되는 선이나 형태 또는 말은 무의식 세계를 투영하고 있다.

19) 월간미술 편: 앞의 책, p. 333.
 20) Stangos, Nikos: 앞의 책, p. 134.

술법에 의거하여 초현실(Surrealite)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던 반면, 후자는 비합리적인 꿈의 세계에 유형(有形)의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초현실을 나타내고자 하였기에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초현실주의에서는 특히 꿈이 강조되었는데 과거의 꿈 그림들과 다른 점은 꿈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로 상관성이 없는 대상들을 암시적으로 병치해 꿈의 감성적 특질을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병치의 방법은 달리와 마그리트에 의해 특히 발전되었는데 이들의 모호, 혼란스러운 인상은 사실주의적 처리와 비현실적 주제 사이의 대조가 특징이다. (그림 9)



[그림 9] 마그리트(Rene Magritte), 연인들 I (The Lovers I), 1928, Collection Richard S. Zeisler

5. 현대 화예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탐구 경향들

이 장은 본고의 주 관심대상인 현대 화예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들에 대해 연구한다. 3장에서 논의한 정신분석학의 성격구조, 성격역동, 성격지형 이론에 관련된 이미지별로 분류하고 각각에서 초현실경향의 표현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작품사태를 분석한다.

5.1. 성격구조와 무의식의 기본추동 : 성추동과 공격추동

프로이드의 성격구조 이론에서 인간의 심리적 체계는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라는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무의식의 과정에는 원초아의 작용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아나 초자아의 작용도 때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프로이드는 이중에서 원초아가 일으키는 심리적인 기본추동(drive)의 충족에 대한 욕구가 인간심리의 갈등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성추동과 공격추동을 인간의 기본추동으로 보았다.²¹⁾

그림 10은 성적인 본능이 가면을 쓰고 표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때로 우리의 욕구가 표출되는 꿈이 내용은 왜곡되고 비현실적이지만 그 외형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상을 띄는 것처럼, 이 작품도 무의식의 성적 추동을 매우 현실적인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티(tea) 테이블의 모양은 사과를 반



[그림 10]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 1998



[그림 11] 다니엘 오스트, 그림 10의 확대

21) 원호택: 앞의 책, p. 46-47.

상징하고 있다. 가운데 가득 놓여진 작은 열매는 다산(多産), 혹은 남성의 정액을 상징하는 듯하다. 정신분석 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작품에서 보이는 성적 욕구의 표현을 원초아의 욕구가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12도 성적인 느낌이 강한 표현이지만 그림 10의 작품과는 달리 여성의 성에 대한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 장미의 양면성, 즉 아름다운 꽃과 날카로운 가시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여성의 성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 스타인 알 한센(Stein Are Hansen), 가시 칼라(Thorn Collar), 1999

그림 10의 작품이 여성의 성기에 대해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

인 반면 그림

13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유리병과 거미줄, 두 개의 가는 식물의 줄기는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



[그림 13]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 1989

는 형태를 취감아 그 내부로 제한시킴으로써 성적 욕구가 무의식 속에 억제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림 14는 인간의 성적 욕구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이다. 꽃을 선사하는 남자가 그림자로 처리되어 있고 또한 여성의 얼굴도 익명으로 처리됨으로써 초현실주의 특유의 애매모호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성의 신체를 감싸고 있는 드레스는 부서지기 쉬운 폴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적인 접근 용이성(easy accessibility)을 느끼게 한다.

그림 15는 그림 14와는 달리 상징성이 강한 작품이다. 꽃은 식물의 성(性)기관이며 주로 여성을 상징하는데 서양식 아침식사에 튜올립이 요리된 모습으로 올라 있다. 포크에 찍어 막 먹기 직전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성의 성에 대



[그림 14] 프랑크 피에페(Frank Pieper), 꽃드레스(Flower dress), 1999

해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로 접근함을 느끼게 한다.

공격추동은 대체적으로 파괴적인 양상으로 표현된다. 프로이드는 공격과 파괴가 사랑의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파괴추동의 궁극목표는 '살아있는 것을 무기물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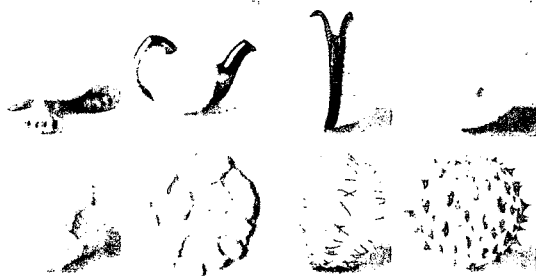
그림 16은 인간의 파괴본능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작품 제목인 '사랑스러운 잎 II(Lovely Leaves II)'은 실제 작가가 잎을 다루고 있는 방식과는 반대인데 이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즉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파괴본능이 의식의 작용에 의해 자제되지만 숨겨져 있을 뿐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 오쯔보 고센, 오씨의 아침식사 (Mr. O's breakfast), 1973



[그림 16] 오쯔보 고센, 사랑스런 잎 II (Lovely Leaves II), 1974



[그림 17] 폰 블레츠키부부(Nicole & Olaf Schroers von Boletzky), 1995

그림 17은 최근의 해체 미학에서 말하는 전위(轉位)의 미학을 표현한 예이다. 전위는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탐구와 많은 연관을 갖는다.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냄으로써, 물체의 비현실적인 배치, 자연적 원근의 역전, 재질의 전환 등으로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심리적 충격을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을 유발해 낸다. 잠재의식을 내포하며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형상을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으로 표현한다. 사물은 일상적 용도를 벗어나면서 그 현실성이 소멸되며 사물의 일상적인 의미도 희석되어 무의식적인 차원을 형성한다.²³⁾

이 작품은 '음식'이라는 일상적 용도와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느낌을 오렌지에 부여하였다. 발톱, 이빨, 가시 등 동식물이 타자를 파괴시키는 측면이 오렌지에 결부되어 있고 아래 왼쪽부터 세 개의 칸은 껍질을 파편화시킨 후 접착, 조각맞춤,

22)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p.422, (1997).

23) 임광숙: 앞의 책, p. 23.

바느질이라는 수단으로 재결합시킴으로서 파괴본능과 생존본능의 양면성을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18은 이러한 파괴본능이 인체를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성이지만 남성스럽기도 한 인체는 비논리적인 결합으로 인해 불가해한 느낌을 준다. 허리가 절단된 형상과 인체에 꽂혀진 핀은 감상자에게 촉각적인 불쾌감을 자아낸다. 즉 잎을 고정시키기 위해 많은 수의 침핀을 사용하였는데 전통적인 화예디자인의 기법과는 달리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타인에 대한 파괴, 또는 자학(自虐)(감상자가 인체를 작가 자신으로 파악하는 경우)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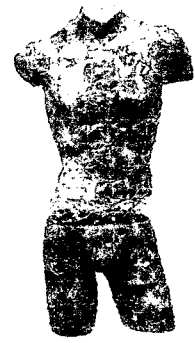
그림 20은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가치의 모순이 전쟁영웅의 이미지와 혼장으로 상징되어 있다. 뾰족하거나 거친 소재를 이용하여 전쟁영웅의 머리를 장식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잔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체계가 가지는 에너지의 양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상징으로써 혼장을 제시하여 인간성의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모순을 표현하였다.

5.2. 성격역동과 무의식의 자기방어기제 : 억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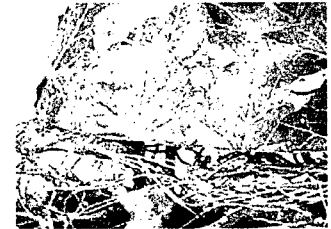
프로이드의 성격역동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적인 불안, 갈등은 자아가 원초아의 추동을 적절히 만족시키거나 지연시키지 못하여 억압되어 있던 추동충동이 의식에 떠오르려는 힘이 강할 때 경험되며, 자이는 이런 신호에 접하면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추동충동을 계속해서 무의식에 억압해 놓으려고 한다.²⁴⁾

고센 오쯔보(大坪光泉)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화예디자인 작가이다. 그림 21은 자아와 사회규범에 의해 억압된 무의식의 욕구를 표현하는 듯하다. 버들가지에 묶여 있는 우레탄 폼은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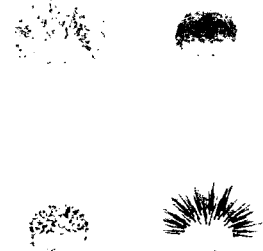
24) 원호택: 앞의 책, p.49.



[그림 18] 마리아 바바라 바그너 (Maria-Barbara Wagner), 토르소,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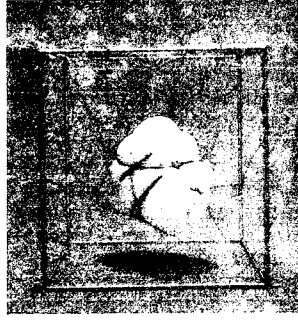
[그림 19] 그림 18의 확대



[그림 20] 마커스 도나티(Markus Donati), 조상의 혈통-우리 시대의 영웅 !? 1999

겨 나오려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인간의 뇌를 연상시킨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그러나 그림 21이 추상적 초현실주의 (Abstract Surrealism)의 영향을 받은 작품인 반면 그림 22는 사실적 초현실주의 (Imagist Surrealism)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데 비이성적, 불합리적 형상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였다. 인간 두상을 잎(Karri tree leaf)이 휘감아 밀착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무의식의 근저에 있는 불안과 갈등이 억압되고 있지만 어떠한 틈새로든지 자신을 표출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의 머리와 식물 잎이 서로에게 녹아 내리며 변형을 이루는 듯한 모습은 초현실 경향의 작품에서 무의식, 또는 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자주 쓰는 기법이다.



[그림 21] 고센 오즈보, 튀어 오르는 것 묶기(Binding Bounding), 1977



[그림 22] 고센 오즈보, 켈로이드 인간 (Keloid Man), 1976

그림 23은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이다. 추상적인 이미지를 현실 세계와 같은 세팅에서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이미지와 사실적 이미지를 그의 독특한 개성으로 결합하였다. 땅에 파여진 구멍과 흙무더기는 의식 뒤에 가려진 무의식의 심연을 상징하는 듯하며 그 속으로부터 기어 나오는 듯한 리이크의 얽혀진 선들은 자아에 의해 억압되지만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는 본능적인 욕구들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림 23]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 1989

그림 24는 고센 오즈보의 자화상이다. 그의 작품들은 앞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매우 심리적인 성향이 강한데 특히 무의식의 욕구를 잘 표현하는 작가이다. 이 작품은 그의 작품집 압력 소개란 위에 그의 인물사진으로 실린 것인데 자신의 작품 성향처럼 자신의 내면도 억압된 불안과 갈등이 많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5의 작품 역시 매우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눈이 튀어나와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멸치들이 원형을 이루며 회전하는 양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이의 가운데에서 나와 바깥으로 늘어져 있는 꽃의 배치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대립과 역동적 관계를 나



[그림 24] 고센 오즈보, 1995



[그림 25] 데트레프 크라트(Detlef Klatt), 물고기와 꽃(Fish and flower), 1999



타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회전하는 힘의 방향성을 가진 멸치들이 더 강한 에너지를 이루고 있고, 꽃은 그 힘에 밀려 지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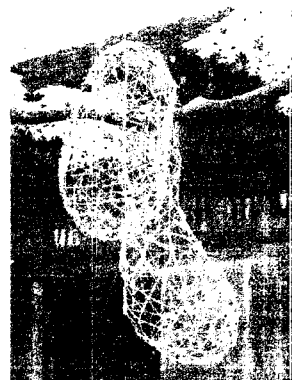
데 감상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멸치를 원초아의 욕구가 형성하는 역동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자아의 강압적인 억압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5.3. 성격지형과 무의식의 경계 : 꿈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의 성격지형 이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세 가지 의식과정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식, 전의식, 무의식 과정이다. 우리의 소망, 욕구, 환상, 초자아의 금지와 이상, 자아의 방어기제 등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에는 원초아의 욕구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아, 초자아, 자아의 세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꿈은 무의식의 이런 작용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잠자는 사이에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무의식의 에너지 역동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면서 꿈에서 보는 형상들처럼 왜곡되고 비논리적인 병치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네 작품은 왜곡된 형태,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면서도 뜻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과 비논리적인 병치현 등 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화예디자인 작품들이다.



[그림 26] 류사쿠 마쓰다(Ryusaku Matsuda), 1995

그림 26은 추상적인 꿈의

이미지가 현실적인 배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초현실주의 특유의 생체적 형태(biomorphic form)가 반투명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유령 같기도 하고 나무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커다란 뱀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림 27은 달리(Dali)의 영향이 짙게 보이는 작품으로 현실의 세계를 나타내는 듯하나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형상들이 묘사되어 있다.

빨간 색 맨 드 라 미 를 make-up), 1989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들이 얼룩진 하얀 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색채처리에 의해 초현실주의 특유의 녹아 내리는 듯한 변형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화장한 무'라는 제목도 불가해(enigmatic)하고 비이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 이 작품의 의도를 돕고 있다.

그림 28은 마쓰다 류사쿠의 작품이다. 그림 27의 작품이 추상과 구상이 혼합된 양상으로 전개되는 반면 마쓰다 류사쿠의 작품은 감상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더 현실에 가까운 형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적이라 해도 여전히 꿈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작품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 그는 조각과 화에디자인의 경계선상에서 작품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 역시 그런 성향이 강하다. 여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머리와 팔이 없고 인체의 안이 비어 있다. 색채 또한 전체적으로 카네이션과 장미 꽃잎을 뜯어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빨강으로 되어 있어 인체에서 쏟아져 나온 피를 연상시킨다. 가운데 놓여진 하얀 그릇 속의 빨간 색 액체는 더욱이 그러한 느낌을 자아낸다. 흰색 종이로



[그림 28] 류사쿠 마쓰다, 개인전 from RED 출품작, 1994

만들어진 비어있는 인체에 비해 꽃잎으로 두껍게 짜여진 드레스는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무게를 주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인가 사악한, 또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림 29 역시 명확하지 않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꿈을 보는 듯한 작품이다. 꽃바구니를 들고 있는 소녀의 행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고 정체가 명확치 않다. 그녀의 눈길이 감상자를 훑쳐보듯 쳐다보고 있어 마치



[그림 29]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 1989

우리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배경의 집과 소녀의 관계가 명확치 않지만 분명 연관이 있는 듯이 소녀 뒤에 위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그리트(Magritte) 그림의 불길한 꿈 이야기를 보는 것같은 느낌이다.

6. 결론

지금까지 무의식 탐구에 중점을 두고 현대 화에디자인에 나타난 비이성적 경향의 표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미술사조에서 찾을 수 있는 비이성적 경향을 감성, 무의식, 반이성의 탐구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중 특히 무의식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이론과 조형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의식의 개념과 특성을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반으로 논의하였고 이와 더불어 무의식탐구를 조형적으로 체계화시킨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조형언어들을 기반으로 현대 화에디자인의 무의식 탐구 유형을 분류하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화에디자인사를 연구해 보면 현대 뿐 만이 아니라 화에디자인이 발생한 이래로 화에디자인은 그 시대의 문화, 예술 사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전통 예술과 전통 화에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 동양화에서는 정신적 이상향의 추구를 목표로 하였으며 표현방법은 선과 공간의 여백처리가 주된 것이었고 단순화 기법이 발달하였다. 반면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화에서는 형태 처리와 공간을 채우는 색의 처리가 발달하였다. 이런 동서양 예술의 차이는 곧 동서양 화에디자인의 표현 경향에서의 차이와 연결된다. 동양의 전통 화에디자인은 동양 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과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중요시 하였고 따라서 선의 유동감(流動感)을 살릴 수 있는 나뭇가지가 주된 소재이었다. 화에디자인을 하는 목적도 정신수양, 인격함양과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서양의 전통 화에디자인은 형태와 색채가 강조되기 때문에 꽃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화에디자인의 목적도 생활에서의 실용성과 상업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화에디자인은 문화, 예술사조들의 영향을 받으며 표현적, 기술적 다양성을 이룩하였고, 동시대의 문화, 조형정신의 시각적, 외형적 유형을 반영하면서 문화,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본고는 이러한 화에디자인의 발전상과 동시대 조형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화에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여러 예술경향 중에서 특히 비이성 경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택한 것은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20세기 이성의 시대, 모더니즘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조형예술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양화, 다변화를 수용하고 정신적,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 지역성을 존중하고 지금까지 이성적, 분석적, 과학적 사고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그동안 비판받아 오던 프로이드의 이론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고 동양의 선(禪)사상, 도교 사상이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새로운 영역탐구의 시대적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본고의 2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비이성 경향 중에서 무의식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지만 감성탐구와 반이성탐구도 동시대 화에디자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이성 경향의 표현들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본고의 후속 연구로 계속하여 이루어지면 비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탐구라는 동시대적 사회, 문화 정신을 현대 화에디자인이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에디자인은 절대자의 창조물인 자연의 식물을 표현의 주 매개체로 사용한다. 인간은 이 자연의 식물에 대해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식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화에디자인의 표현에 대한 선입견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어 왔다. 즉 미(美)적인 표현,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에 화에디자인의 표현을 한정시키는 시각은 극복하기 어려운 편견이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화에디자인은 더 이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작품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형활동에서 가능한 모든 표현을 식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들처럼 아름답다는 기준과는 다른 무의식의 억압된 욕망들조차도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대 조형정신의 외형적 표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에디자인의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동시대 조형의 내적 가치 정립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고는 미술사조의 어휘들과 이들의 분석기준을 화에디자인 작품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화에디자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형예술과 디자인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화에디자인 고유의 개념과 특성에 의거한 분류와 기준,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조형적 언어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지만 화에디자인의 정체성 확립과 앞으로의 더욱 발전된 연구를 위해 미래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가와세 도시오 작품집 私の花(나의 꽃). 講談社, (1996).
- 고하수.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1992).
- 류사쿠 마쓰다. 작품집 松田 作, 京都書院 (1995).
- 미술도서편찬연구회 편. 미술 인명 용어 사전. 도서출판 우람, (1990).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 박찬국 외.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 재원, (1995).
- 알렌허버트. 디자인의 개념. 도서출판 재원, (1993).
- 오즈보고생(大坪光泉). 작품집 大坪光泉. 京都書院, (1995).
- 왕백민, 강관식 역. 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1).
- 원호택. 이상심리학. 법문사, (1997).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6).
- 진조복, 김상철 역. 동양화의 이해.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1995).
- 한국 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동아문화사, (1995).
-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1997).
- Assmann, Peter ed., 작품집 Objekte, Donau-Verlag Günzburg (1992).
- Boletzky, Nicole Schroers-von의. 작품집 Meister Floristen der Schweiz, Stichting Kunstboek. (1995).
- Croix, Horst de la & Richard G. Tansey.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6).
- Gilbert, Rita & William McCarter. Living with Art. Alfred A. Knopf Inc., New York, (1985).
- Hartt, Frederick. Art - a history of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Prentice Hall, Inc. & Harry N. Abrams, Inc., (1989).
- Honour, Hugh & John Fleming. the Visual Arts : a History. Prentice Hall, Inc. (1982).
- Hunter, Sam & John Jacobus. Modern Art. Prentice Hall, Inc. & Harry N. Abrams, Inc., (1985).
- Ost, Daniel. 작품집 Daniel Ost. Floreal, (1998).
- Ost, Daniel. 작품집 Daniel Ost. Martine De Dierck-Van Den Weghe, (1990).
- Stangos, Nikos,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London, (1981).
- Teruji, Shirasawa. World Flower Artists 2. SODO Publishing, (1999).

논문

- 나선영. 현대 화에디자인과 포스트모더니즘. 한국 화예(華藝)학회, 창간호, (1998).
- 이정민. 화에디자인의 현대적 개념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화예학회, 창간호, (1998).
- 임광숙,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함태봉, 데리다와 해체이론, 월간꾸뎀, (1989).